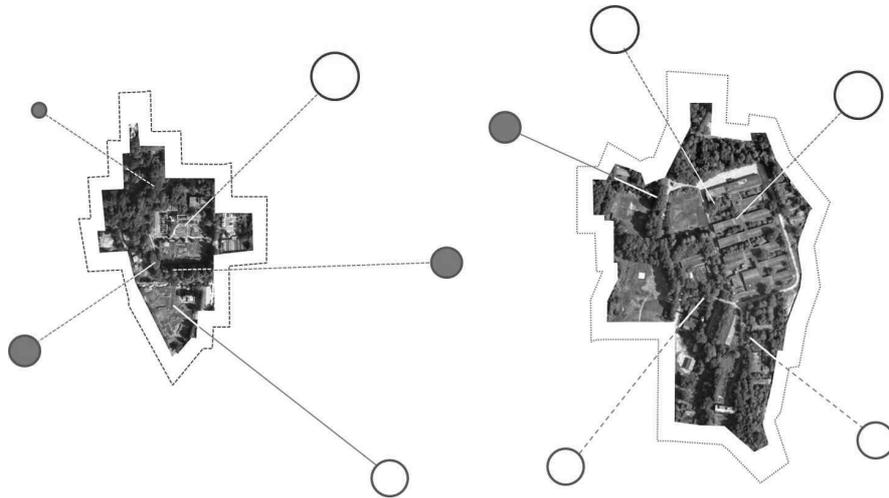


옛 기무부대와 국군광주병원 이전부지 공원화에 있어...

숲, 공원, 도시재생, 시민을 잇는 전략의 필요성

조동범 /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사)푸른길 상임이사



1. 군사시설에서 공원으로
2. 두개의 공원을 보는 관점_도시와 공원의 관계
3. 두개의 공원을 보는 관점_도시공원 분포와 녹지네트워크에서의 2개 공원의 역할
4. 두개의 부지를 보는 관점_제기되어 온 용도는 현대도시의 공원의 비전에 적절한가?
5. 숲, 공원, 도시재생, 시민을 잇는 전략들
6. 2개의 부지를 통해 본 광주시 공원녹지 정책의 역할 환기

1. 군사시설에서 공원으로

기무부대 이전부지

서구 쌍촌동 993-35 /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 35,148㎡ / 5.18민주항쟁 사적 26호
주변지역 :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971 현재 위치에 기무부대 입지
- 1980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의 실질적 지휘부 역할을 했다고 추정되는 505 보안대가 주둔했던 5.18 관련 핵심장소이며, 민주인사들을 연행.구금.고문했던 역사적 현장
- 2005. 11. 기무부대 이전
- 2007. 5.31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정책토론회 개최
- 2007. 6.26 광주시 사적지로 지정(전남대 5.18연구소와 5.18기념재단 검토, 사적지보존 심의위원회 심의)
- 2007. 6.27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07. 8~10 아파트건설사업 승인신청서 반려. 광주시 서구청
- 2007. 10.22 기무부대 이전부지 역사공원 활용을 위한 간담회 . 5.18기념재단
- 2007. 10.24 청와대.국방부.광주시 무상양여 협의
- 2014. 2.24 광주시와 국방부간 1/2 무상양여, 1/2 매입 협의

국군광주병원 이전부지

광주시 서구 화정동 325 /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 94,000㎡ / 5.18민중항쟁 사적 23호
주변지역 :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학교

- 1965 국군광주병원 입지
- 1980. 5.22 "통합병원 통로확보를 위한 축출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신학대학 앞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진입하면서 주택가를 향한 무차별 사격이 이뤄진 장소이며,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299명의 의로운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부상당해 치료받았던 역사적 장소
- 2001. 7 함평군 해보면으로 병원이전 발표
- 2003. 국정원 부지와 국군병원부지 일부를 포함하여 화정공원 조성
- 2003. 6.9 '국군통합병원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정책토론회(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 2007. 5 함평군 해보면으로 병원이전 완료
- 2010. 3 광주여자고등학교 이전
- 2014. 2.24 광주시와 국방부간 2개 부지 절반 무상양여, 매입 협약

2. 두개의 공원을 보는 관점 _ 도시와 공원의 관계

기무부대와 국군광주병원 이전부지는 군사시설로서 30년 이상 도시와 단절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이전 이후에도 부지개방과 공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10년 가까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주변과 단절되어 왔다. 그 사이에 주변도시의 토지이용은 더 고도화되거나 상업화되고, 단독주택들은 노후화가 진행되어 왔다.

부지 내부에는 생태적으로 우수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과거 군부대의 성격상 속성수와

상록수들이 간섭 없이 자랄 수 있는 지역이었고 경관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주로 경계녹지가 강하게 부지를 위요하거나(기무부대 부지) 내부에서 주요 동선을 따라 선형녹지가 형성(국군광주병원 부지)되어 있어서, 공원화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원으로 이용되기에 손색이 없는 상태이다.

2개의 부지는 보완시설로서 관리된 정도, 부지의 형상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면서 보완이 더 강조된 기무부대 부지는 경계시설이 밀실 조건을 만들면서 지역주민에 의한 텃밭이용의 침입이 두드러지고 건물의 관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 국군병원부지는 녹지의 자연적인 변화 외에는 이전 이후와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 부지로부터 공원으로 바뀐 화정공원과 청소년문화의집의 입지, 광주여고 이전 등 토지이용 변화가 발생하면서, 부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함께 주변도시와의 소통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최소한의 관리를 통해 기존 시설 공간을 중심으로 공원조성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이든 공원의 경계는 초기에 개방되었어야 함을 보여준다.

공원의 경계 내외부가 경계시설과 녹지만으로 주변과 단절될 때 쓰레기투기나 불법적인 점용, 우범지대화가 우려된다. 부지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폐쇄적인 담장보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투시형 펜스 및 내부의 방치상태가 노출되는 경우 더 불안한 것으로 느낀다. 부지내부와 외부는 이미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원화에 앞서 부지 경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되어 전이지대로서, 특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지의 개방이 공원의 빠른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훼손을 유도하지도 않는다. 공원의 개방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부지내부가 경작행위로 점유되거나 쓰레기 투기로 덮이지 않을까 하는)는 오히려 적절한 관리분담과 협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3. 두개의 공원을 보는 관점 _ 도시공원 분포와 녹지네트워크에서의 2개 공원의 역할

광주의 도심부와 주변 녹지와와의 관계에서 볼 때 무등산-제석산-금당산-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구릉지는 도시를 위요하는 내환상 녹지축을 이루면서 광주천 주변의 평지부와 만나면서 폐취형 녹지로 파편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쌍촌동, 화정동 일대는 남북방향의 지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군사시설로서 필요한 면적 및 완충공간을 확보하였고, 이전 후에도 그 존재만으로 도시화된 주변에 대해 거점 녹지가 될 수 있었다. 2개의 부지는 지형적으로도 요점에 위치하여 상무대로로부터 도시축 경관형성의 배경이 되거나 지형적 맥락과 도시경관의 깊이감을 보여주는 시각적 단서를 제공한다.

상무지구 개발 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먼저 시가화가 이루어진 이 일대는, 내용적으로는 획일적인 단독주택지 블록-비정형적인 중소규모의 부지에 공동주택 개발-도로변 준주거.근린상업지역에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계획적이지 못한 도시화 결

과를 보여준다. 경관적으로는 상무대로의 가로경관이 혼란스럽게 전면을 차지하며 배후의 지형이나 낮은 스카이라인을 가리고 상무대로에 연결되는 접속도로들은 폭원이 좁아 부지의 존재를 잘 드러내주지 못하는 협소한 도시경관을 이루게 되었다.

또 다른 면에서는, 공원과 녹지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거의 공급되지 않은 점도 열악한 도시경관이 형성된 원인의 하나이다. 그런 가운데 광주카톨릭대 녹지, 기무부대, 국정원, 국군병원 부지의 녹지는 경관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 지역은 시기적으로 도시개발에 의해 적절한 생활환경이 공급되지 못하였거나 혜택 받지 못한 생활권으로 보아야 한다. 노후화에 따른 도시재생의 필요성 이전에 불완전한 도시개발방식으로 처음부터 치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국군병원부지의 활용방안으로 제안된 트라우마센터의 주제를 확장해보면 정작 치유되어야 할 것은 이 지역의 도시개발과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이다.

금당산-중앙공원과 함께 광주카톨릭대 평생교육원-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5.18공원 등의 녹지는 2개 공원과 함께 패취화된 녹지들을 연결하는 데 있어 조각보의 이음매와 같다. 작은 조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따라 생물서식과 이동을 위해 긴요한 아일랜드형 녹지가 될 수 있다. 광주천, 운천저수지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다는 점도 도시 조류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뒷받침하는 조건이 된다.

4. 두개의 부지를 보는 관점 ... 5.18역사공원, 아시아창작예술센터, 트라우마센터, 꿈의 공원 ...

제기되어 온 용도는 현대도시의 공원의 비전에 적절한가?

기무부대와 국군병원 부지는 기본적으로는 5.18과 관련된 역사공원이나 치유 주제의 시설 제안에서처럼 부지가 가졌던 과거 성격을 뒤집음으로써 장소성을 역설하고 사건과 기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서는 가져야 할 보다 더 중요한 점은 다양화되어가는 현대사회의 가치들과 복잡해지는 수요에 대비한 유연함과 가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고정된 공간프로그램, 단일주제의 공원만으로 도시화된 주변의 상황과 다양한 요구에 대해 대응하기 어렵다. 그것은 공원 내에 공간이나 시설을 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다양하게 쓰기 위해 어떻게 비울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의미이다.

특정주제의 공원은 단기간의 시각적 효과에 집착하기 쉽고, 고정된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맥박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미 30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역설의 장소성은 퇴색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좋은 도시공원의 조건은 공간기반에 의하기 보다는 사회기반형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정된 주제로 공간.시설을 정해두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도록 자극하고 공원이 시민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공원의 사회적 기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이용자가 될 시민이 공공 공간의 가치에 눈을 뜨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먼저 내야 한다. 공원은 부지를 구하지 못한 이런 저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비어있는 땅이나 법에서 정한 구색맞추기의 녹지가 아니라 도시와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이자 복지의 거점으로 먼저 보아야 한다. 공원에 대한 인색한 투자와 부족한 유지관리, 운영프로그램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넘어 공공공간에 대한 사회, 경제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원이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점에 눈 뜨는 사회적 자본이 등장하여야 한다. 불행하게도, 1년에 한번 기념일을 위해 공원의 공간과 시설이 점유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원을 둘러싼 사회적 자본은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오래 시간을 들여 힘들게 무상양여 받은 기무부대 부지와 국군병원 부지를 간단하게 특정 주제로 가두어두는 공원화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조금 더 유연한 논의를 위해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2개의 공원을 한 시야에 두고 공원의 개념과 도시와의 관계를 포함해 동상이몽을 꾸어보는 기회(공원 개념공모)도 가질 필요가 있다. 국군병원에 제안되었던 꿈의 공원은 단지 또 다른 주제로서 보다는 공간프로그램의 민주적 확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안의 하나이다.

5. 숲, 공원, 도시재생, 시민을 잇는 전략들

(1) 공원에서 발견되는 플랫폼 지형 활용

2개의 공원에는 이전 이후에도 보존되어 있는 건축물과 그 입지는 이미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평탄하고 주변 숲에 대해 개방적 공간이며, 자연요소와 대비되는 기하학적 형태에 주변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시설부지나 고정적으로 규정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비워두거나 행사를 위한 마당, 정형적인 정원, 온실이나 식물원, 경작공원 부지로 모색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 오픈뮤지엄과 컨벤션(Open Air Museum & Convention)

부지 내에 존재하는 건축물들은 그 기본구조를 보존하면서 재생적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국군병원 부지내의 건물들은 저층이면서 연동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건축물과 외부공간을 별개로 취급하지 않고 통합적인 재생이 필요하며 전시정원이나 웨딩컨벤션 등으로의 활용에 적합하다.

○ 생산공원(Agricultural Productive Park)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도시농업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원에서의 경작의 의미는 주민간의 교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기대와 도시생활의 정신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인문학적 장소로서 공유가 되며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함께 계절변화를 보여주는 도시녹지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동시에 가진다.

텃밭과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경.원예식물 재배공간을 결합하고 경작공원 주변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농업창고, 온실, 유기농푸드 판매, 동호인 교류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일자리창출과 연결한다.

(2) 보존된 건축물의 활용과 재생, 서서히 지워가기

기무부대와 국군병원부지에 남아있는 30여동의 건물들은 제안되는 주용도 외에는 비확정적.개방적 용도로 사회적 임대방식(Social Rent System)을 도입한다. 부지 전체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여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거나, 건축실험공간으로의 활용, 작가의 작업공간, 경작공원 이용자나 가드너들의 교류공간, 농작물 판매장, 온실, 풍경정원으로 조성하는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3) 부지경계부의 지형과 시설

부지 경계부는 주변도시와 공원의 관계 속에서 단지 접근성이나 완충지역라는 점에서만 다루지 않아야 할 전이지역이다. 특히 국군병원의 경우처럼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지역의 단절요인이 되는 경우 (통학이나 통근, 장보기 등 일상적인 목적으로) 남북을 관통하는 통행로부터 개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변의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공원과 연결되도록 하고 주변부의 숲이 다양한 세대의 활동에 맞춰 체험, 놀이, 모험, 휴양, 산책과 운동, 치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실하게 관리되기 쉬운 경계부 문제에 대처한다.

(4) 주민참여와 소셜 네트워크

시민참여는 성공적인 공원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공모전, 동아리활동, 공원관리에의 참여, 생산공원에서의 농작물 재배, 나무심기, 가드닝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공원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내 공원, 우리 마을의 공원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여 지속성있는 공원을 만들어가는 자산이 된다.

국군병원 부지와 기무부대 부지의 공원화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로부터 공원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만큼 이를 공원의 생명력으로 바꿀 '주민참여 잇기'라는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단지, 공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공원화를 재미있고 즐거운 참여의 과정으로 느끼게 하고 공원의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원 전체의 설계나 조성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조경가나 아티스트가 제안한 특정한 시설이나 공간의 설계 및 제작과정에서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잇는 현장 워크숍 등은 그러한 기회제공의 방법이다.

공원을 통해 주민간의 교류와 이벤트, 자원봉사와 일자리, 대학생들의 사회봉사가 이루어지면

서 공원은 공간적 장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의 장이 된다. 좋은 공원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약속과 사회적 책무,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5) 지역재생,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공원 전략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급되는 천편일률적인 시설로서의 공원이 아니라 수십 년 주변과 단절되었던 부지가 공원으로 바뀌게 될 곳이기 때문에 이미 잠재적 이용자가 대기하고 있고 부분적인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생활권 속에서 주민의 생활과 밀착되면서 주민참여를 통해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역할이 공간.시설 프로그램 속에서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놀이지도사 : 공원에 아이들의 꿈 공원과 같은 공간프로그램이 도입될 때, 아이들의 요구를 살피고 놀이기구를 만들거나 필요에 따라 해체하고, 다른 놀이기구를 만들기도 하면서, 어린이의 의향을 헤아리며,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보조원이다. 사고 대응이나 일상적인 안전을 배려하면서, 자신도 놀이에 참여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연상의 친구와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다. 도시공원 운영에 있어 시민참여의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세대를 연결하는 청년, 주부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다.

○공원문화 큐레이터 : 도시 숲이나 공원에서 공원 문화를 만들고 예술 활동을 하면서 공원시설을 예술적으로 제작하거나 공원에서의 공연활동을 기획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민참여 운영 프로그램에 조경가와 문화예술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민정원사(시민가드너): 공원에서 운영하는 시민가드너 양성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녹지 의식을 고양하고 정원문화를 보급하며, 시민가드너들은 다시 마을만들기 속에서 정원디자인과 관리방법을 전파한다. 공원의 수목관리나 녹지조성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하고 여성과 노인일자리 창출로 연계한다.

6. 2개의 부지를 통해 본 **광주시 공원녹지 정책의 역할 환기**

대규모 도시개발이 집중되었던 지난 1990~2000년대에 비해 최근 광주의 도시공원 확보에서는 택지개발에 의해 조성되는 공원비율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전부지의 공원화나 주체공원의 등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광주시의 공원녹지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 보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부지의 무상양여나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적 협의를 진행하고 해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공원 확보가 지연되었거나 공원의 위상과 개념을 선점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만다.

예산이 확보된 시점에서야 행정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행된다면 그 사이에 의미 있

는 땅들마저 그 비전과 방향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적 공유자본으로서가 아니라 특정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설픈 계획.설계를 통해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특히 공원을 통해 ‘해야 할 일(환경과 생태 기반이 되는 도시녹지)’과 ‘할 수 있는 일(문화, 사회적 네트워크 만들기)’, ‘하고 싶은 일(개별적이거나 맥락이 부족한 다양한 수요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에서 공원녹지정책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초기에 도시공원 확보 전략, 조성방향, 디자인, 주민참여방안을 모색하는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미 부지가 확보되고 조성방향이 결정된 상태에서 식재 위주의 물적 조성계획을 담당하는 역할에 공원녹지 행정의 머물거나 다른 부서의 추진사업을 공원형태로 뒷받침해주는 지원역할에 머물러서는 미래의 공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기무부대 이전부지와 국군광주병원 이전부지는 그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고 있다.

tobcho@jnu.ac.kr